

TV 2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6-12 listing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싸이, 11월 미국 데뷔 앨범 한국어 넣는다

귀국 기자회견 “웃음 코드가 맞아서 성공 한 것 같다”

“다음 목표를 몰으시는데, 사실 오늘 이상할 이상을 어떻게 꿀꿀 수 있나 싶습니다. 여기서 멈춰버려도 한이 없을 정도로 기뻐요.”

2주간의 미국 방문을 마치고 25일 돌아온 ‘월드 스타’ 싸이(박재상·35)의 귀국 소감이 다.

싸이는 이날 강남구 삼성동 라마다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에서의 성과 및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 밝혔다.

기자회견장에는 ‘월드 스타’ 싸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해외 유력 매체들이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사실 아직도 얼떨떨하다.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사실 그동안 드리고 싶은 말도 많았지만 다 계획했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말했어야 하는데...”

“말춤”을 추며 퇴장해 기자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한 공유도 없이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무척 놀라웠다.”

그는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 NBC TV의 ‘투데이쇼’ 출연 당시 한국어 멘트를 해서 화제가 됐다.

못했을 거다. 뭔가 좀 울컥한 기분이 들어서 그랬다. 두 번의 한국말은 어찌 보면 작지만, 어찌 보면 또 되게 큰 한국 가수의 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싸이는 자신이 생각하는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 비결도 밝혔다.

“사실 저도 잘 모르겠다. 의도한 바가 없었던 거라. 그냥 모든 코드가 웃겨서 시작될 일 같다. 우리도 유튜브에 희한한 외국 영상이 있으면 돌려 보지 않나. 스터브 브라운(미국 매니저)도 지인이 보내준 영상을 보고 저를 발견했다더라.(웃음) 음악을 하는 사람이 웃겨서 성공했다고 하는 게 좀 웃기지않아 웃겨서 보면 또 그래야 납득시킬 것 같다. 전세계 어디서나 가장 좋아하는 감정은 웃음 아니까.”

그는 미국에서 새로운 싱글 혹은 싱글이 포함된 앨범 중 하나를 계획 중이다.

“그쪽(미국) 시장은 추수감사절부터 크리스마스까지 굉장히 많이 움직인다고 하더라. 미국 측에선 11월 말까지는 음반을 만들 예정이라고 얘기하는 상황인데 제가 11월 말까지는 도저히 음반을 못 만들 것 같다. 그래서 기존의 제 곡으로 (음반을) 만드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 감사하게도 (음반 유통사인) 유니버설 측에서 먼저 ‘한국말로 노래하는 모습을 어느 정도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두 번째 싱글은 아마 영어로 만들게 될 것 같다. 발매 시기는 11월 중순 혹은 말갈이 되지 않을까 싶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26일(음 8월 11일 庚寅). Includes zodiac signs and horoscope predictions for various signs.

EBS EBS플러스1 EBS플러스2. Table listing EBS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굿모닝 잉글리쉬. I didn't get to sleep until 12:00. 12시가 돼서 잠이 들었어. A: It's long today. I'm too tired. B: What time did you go to bed last night? A: I went to bed at 10:00, but I didn't get to sleep until 12:00. B: Insomnia is not good to your health. A: 오늘 너무 긴 하루였어. 너무 피곤해. B: 어젯밤 몇 시에 잠자리에 들었는대? A: 10시에 잠자리에 들었지만 12시가 돼서야 잠이 들었어. B: 불면증은 사람 건강에 너무 안 좋아. * 나는 어젯밤 10시 잠들었어. = I slept at 10:00 last night.~(×) = I went to bed at 10:00 last night.~(○)

한자이야기. 覆巢無完卵(복소무완란) 다시 복, 새집 소, 없을 무, 완전할 완, 알 란. 복소무완란(覆巢無完卵)이란 ‘알이 없으면 새집은 완성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근본이 썩으면 가지도 썩는다는 말이다. 후한(後漢) 시대 학자인 공융은 한때 손권에게 체포된 적이 있었다. 체포될 당시 공융에게는 아들 살과 여덟 살이 된 두 아들이 있었다. 손권의 부하들이 공융을 체포하려 왔을 때 공융의 두 아들은 장기를 두고 있었다. 공융이 체포되면서 두 아들에게는 화가 미치지 않도록 손권의 부하들에게 신신당부하였다. 그러자 공융의 아들이 “어어어 새집 밑에서 온전한 알이 있을 수 있습니까?”라고 말한 데에서 유래했다. 아버지가 계시다면 자신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가 체포되어 가는데 자신들도 벌을 받지 않고 어찌 집에 편안히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출전] 『후한서(後漢書)』(공융전(孔融傳))

니하오 쑹구위. 酒香不怕巷子深. 목이 필요 없는 장사 잘되는 가게. “술 향(酒香)은 골목(巷子)이 깊은(深) 걸 걱정하지 않는다(不怕)”라는 의미로 “제품만 좋으면 손님은 몰려든다”라는 말입니다. 예전에 중국 상인의 기질과 관련된 책을 읽다가 좋은 구절이기에 여기에 소개하려고 기록해 왔는데, 지난 고등 HSK 작문 시험에 출제되었다고 합니다. “酒香不怕巷子深과 광고 선전 방법에 대해 논하라”라는 제목으로. 뭐 이거 조선시대 역관 뽑는 과거시험도 아니고 상당한 난이도지요. 술맛이 좋으면 골목 깊은 곳에 위치해도 찾아옵니다. 요즘은 거의 모든 술집의 술맛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服务不怕巷子深 fúwù bùpà xiàngzi shēn. 섣다른 서비스는 골목이 깊은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하오우 니혼고. 当てもなく歩いてみたいです. 정처없이 걸어보고 싶습니다. A: そろそろ秋ですね。旅行に生きたいです。 B: 私は落ち葉の上を当てもなく歩いてみたいです。 A: どこか行きたいところでもありますか。 B: どこかじゃなくて誰かとじゃないでしょうか。 A: 술을 가을이군요. 여행가고 싶어요. B: 나는 낙엽 위를 정처 없이 걸어보고 싶어요. A: 어디 가고 싶은 곳이라도 있습니까. B: 어딘가가 아니라 누군가와와 아닐까요. そろそろ 술술 旅行に行く 여행들 가다 当てもなく歩く 정처 없이 걷다 落ち葉の上 낙엽이 쌓인 길